지역 소식통

고창군, 제설대책 본격

고창군이 겨울철 폭설과 결빙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설 대책을 수립하고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지난 1일 고창군에 따르면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동절기 제설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제설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군은 관내 34개 노선 327㎞의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자체 덤프 7대, 굴삭기 등 제설장비를 이용해 주요 도로를 제설작업을 실시한다.

올해부터 읍·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제설대응을 위해 1톤 트럭용 제설기와 살포기 각각 15대와 소금 등 제설제를 집중 비치했다. 또 양고살재, 방고개, 달터제, 조산저수지 등 취약구간 중점관리, 고갯길 적사장, 모래주머니, 주의 표지판 설치, 염수분사장치 정비와 경찰서, 군부대, 국토관리사무소 등 유관 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급경사지 등 도로 위험구간 청하아파트 입구, 남초등학교, 성산임대아파트 입구 곳곳에열선설치도 마무리했다. 여기에 제설봉사자의 트랙터 200여대에 삽날 고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2023년 '지자체 협력사업' 성과보고회

정읍시는 지난달 3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2023년 지자체협력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자체협력사업은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자체-농협중앙회-지역농협이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하는 협력사업이다.

이 자리에는 지역 내 10개 농·축협·공동법인 관계자와 농업기술센터 농업 실무부서 총 40명이 참석해 올해 3월부터 농협별 특화품목을 지정·육성하여 정읍시 대표 특화품목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실시한 25개 사업(58억 4700만원)에 대해 농협별 추진성과 보고가 이뤄졌다. 주요 보고 내용은 정읍농협의 만감류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정읍원예농협의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지원사업 등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컨퍼런스센터 운영

도시재생·주민 거점시설 '달하노피곰' 문 열어
회의실·캡슐호텔·카페 등 갖춰 지역활력 기대

정읍시의 도시재생과 주민 거점이 될 달하노피곰 컨퍼런스센터가 지난 1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정읍역 인근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달하노피곰 컨퍼런스센터에는 카페, 캡슐호텔 등, 회의실 등을 갖췄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임승식 전북도의원을 비롯해 리본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이재운·이하 리본마사협) 조합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달하노피곰'은 도시재생사업의 브랜드명으로 정읍 천년의 정읍사가요를 컨셉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만들어졌다.

컨퍼런스센터는 KTX와 연계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의 회의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지역주민의 각종 행사나 모임의 장소로 제공될 예정이다.

카페와 캡슐호텔은 리본 마사협의 '젊은문화상인들' 청년들이 주축이 돼 음료와 빵을 판매하고 숙박시설로 운영하게 된다. 특히 캡슐호텔은 전북지역에서 최초로 운영되는 것으로, 지역 출장이나 기차 대기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시는 시설의 운영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리본마사협과 지난 10월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리본 마사협은 그동안 준비를 통해 개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게 되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기업 제안형 지구에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리본 마사협이 전국 245개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중에서 으뜸가는 조합으로 성장해 구도심권의 상권회복과 지역활력의 중심자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며 "달하노피곰 브랜드를 통해 정읍역과 터미널을 중심으로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도록 조합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달하노피곰 컨퍼런스센터가 지난 1일 이학수 시장과 임승식 전북도의원, 리본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부안,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신규 장비 400대 추가 설치 완료… 서비스 대상자 적극 발굴

부안군은 ICT 기술을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차세대 장비 기존 642대에서 400대 추가 설치를 완료하여 총 1,042가구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최신 ICT(정보통신기술)를 적용한 장비를 취약노인 가정에 설치해 화재·활동량을 감지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고하는 등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그동안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대상이었으나, 이번 3차 사업부터는 고령의 노인부부, 조손가구 등 대상자 기준을 확대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부안군은 댁내 장비가 설치된 대상자들에 대해 활동감지기 안전확인, 응급상황 발생 확인, 대상자 댁내 안전 실태 확인 등을 위해 응급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설치된 장비를 관리중이다.

실제로 올해 독거노인 가정화재 발생 시 화재감지기가 작동하여 119로 연결, 신속히 출동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특히, 서비스를 제공받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먼 거리에 있어 자주 와보지 못하는 부양의무자들에게도 호응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매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노인 및 장애인 대상자들의 응급상황을 빠르게 인지하여 안전망 확보 및 고독사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내년에도 대상자 발굴에 힘써 좋은 정책이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는 지난달 2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2024~2028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정읍시, 연말연시 축산물판매업 지도·점검 실시

지역 내 260개소 대상

정읍시가 연말연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점검에 나선다.

정읍시는 4일부터 두 달간 축산물판매업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역 내 축산물판매업체 260개소를 대상으로 식육 처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류 등의 위생적 취급 여부, 축산물 운반·취급 과정의 위생적 관리와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등에 중점을 둔다.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통해 믿을 수 있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축산물 처리·취급에서의 청결관리 미비, 식육거래내역서 기록·관련 서류 미발급, 식육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위반 정도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령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광성 과장은 "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와 교육을 병행해 계도를 실시하고, 소비자의 건강 등을 위협하는 부정축산물 유통 등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엄중한 행정조치를 실시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중간보고회

정읍시는 지난달 2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2024~2028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2024~2028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해 실시하는 법정 의무 계획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농업과 농촌의 중장기 비전을 담아 수립하는 지역단위 기본계획이다.

시는 지난 5월 용역을 착수한 이후 분과위원회 개최(8개 분과), 지역주민 설문조사 실시(822명), 각 분야별 농업관련 단체와 면담 실시(23개 단체) 등 농업·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학수 시장과 지역농·축협 조합장, 농민단체 회장 등 69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농업네트워크 호남 협동조합 장현욱 팀장으로부터 용역 추진 진행 상황, 농업농촌 현황과 특성을 분석한 비전과 목표, 발전전략 등 부문별 혁신 추진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고 토론시간을 가졌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정읍의 농업·농촌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업이 반영되도록 실현 가능한 전략이 담긴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고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고창군이 12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 고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상향하여 10% 할인판매를 시작한다.

이번 구매 한도 확대는 연말 나눔과 상생을 위한 눈꽃 동행축제와 글로벌 경기 불황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군민 생활안정,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군은 상품권 판매대행점 부정유통(본인 외 판매 등) 현장점검과 함께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한 구매·환전 이력 등을 상시모니터링하여,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이나 환전과다 대상업소등에 대한 현장점검 등 부정유통 단속도 엄중히 진행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발행된 고창사랑상품권은 시행 5년차에 접어들면서 가맹점이 2900개소에 이르며, 명실공히 군민들의 소비생활의 중심 매체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군은 올해 설 명절 20% 116억원, 집중호우 피해 회복 지원 80억원, 추석 명절 구매한도 상향 100만원 131억원 등 특별할인으로 327억원을 판매했다.

/고창=김영식 기자